

김민석 국무총리, 아스콘 생산업체 현장 방문 건설자재 수급 현황 점검

- ‘비상 전국 점검’ 일환으로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현장 점검
- 건설자재 전반에 대해 품목별 수급상황 상시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지시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(목) 오전, 아스콘 생산업체((주)공주아스콘,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)를 방문하여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인 아스콘(아스팔트콘크리트)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, 국토교통부·조달청·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*와 함께 수급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(참석) 서상연 아스콘연합회 회장, 조성연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이사장, 원진연 (주)공주아스콘 대표이사 등

○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‘비상 전국 점검’ 일환으로, 최근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을 점검하고, 건설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먼저, 김 총리는 아스콘 업계로부터 아스콘 생산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“현재 중동상황으로 인한 중동유 수급 문제로 그 영향이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, 관계부처가 건설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,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아스콘,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수급상황 상시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.

○ 또한, 산업통상부에는 원유 수급 문제 해소 노력과 함께 아스팔트(아스콘의 주재료) 생산자인 국내 정유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재고물량 파악·배분 등 아스콘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 조달청에도 아스콘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비 상승, 공기 지연 등으로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공사비 상승분 반영, 납품기한 연장 및 공사기간 조정 등을 적극 조치하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상황에 따른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황세은 (044-200-2235)
		담당자	서기관 박선동 (044-200-2236)

